

민주통합 경선 변수... 단일화·무소속 연대

“현역과 일대일로” 뭉치는 후보들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 간 단일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 간 단일화 움직임은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후보 간 단일화가 경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 가능성도 점차 커지면서 본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과의 일전도 예상된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일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통합당 박선원·배기운 후보가 단일화 추진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광주 북구 갑 ▲여수 갑 ▲해남·완도·진도 ▲순천 선거구 등 5곳에서 일부 예비후보들의 단일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 북 갑의 경우 지역구 ‘3선’을 노리고 있는 현역 강기정 의원에 맞서 김경진·임현호·이형석·박규환 예비후보 등 4명이 그동안 꾸준히 단일화 논의를 해왔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단일화에 앞서 이형석·박규환 후보 등 2명은 먼저 단일화에 합의하고,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중 단일화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김경진·임현호·이형석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정도 만남을 갖고 단일화에 뜻을 같이 함에 따라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달 경우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강기정 의원 대 단일화 후보 간 일대일 구도가 형성돼 경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도 단일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지역으로 선거구가 나뉘는 만큼 해남 출신 후보들의 단일화가 지역 단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완도 출신인 현역 김영록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해남 후보들의 단일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그동안 팽배해 있었다. 현재 해남 출



우리지역 어떤 후보 나올까

7일 현재 4·11 총선에 나선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들은 112명(광주 49명·전남 63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는 6.1대의 경쟁률을, 전남은 5.3대의 경쟁률을 보이며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각 후보들이 각종 명함 등을 뿌리며 표발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도 각 후보들의 인물 뒤편을 꼼꼼히 살펴 ‘좋은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북갑, 여수갑, 해남 등 5곳 합중연횡 논의 구체화

일부지역 무소속연대 조짐... 정당 후보들과 일전 불사

신 예비후보는 박광은·민병록·윤재갑·양동주 예비후보 등이며, 무소속 전문철 예비후보도 이번 단일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단일화 추진위를 만들어 20일까지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갑 지역에서도 현역 김성근 의원을 제외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의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광진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김성근 국회의원을 제외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시민들의 바꾸자는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조속히 후보 단일

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나주·화순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배기운·박선원 후보가 나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갈증이 목까지 차 올랐다”며 “사즉생 각오로 단일화를 불사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이들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기득권에 안주해 고소·고발을 일삼는 구태정치 청산, 부풀린 예산타령으로 지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 정치, 민심을 현혹하는 금권정치를 이겨내고 소상공인과 농민을 위한 서민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 예비후보는 “대부분 정치신인인 이들은 강력한 현역 의원을 이기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서로 공을 들이고 있다”며 “후보들 간 합중연횡이 이뤄질 경우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순천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일부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보훈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기도서 전남도위원은 지난달 31일 ‘단일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비례대표는 당과 상의... 더 큰 정치에 몸 던지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11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비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례위원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비례위원장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은 전례 없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4·11 총선에 전력투구함으로써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비례위원장은 “지역구민 여러 분께서 더 큰 정치에 헌신하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더 큰 정치에 몸을 던지기로 결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맞아 저를 정치에 임문하게 해준 정치적 고행이 달성군”이라며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이 성원해주고 보살펴 준 언은 전례 없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4·11 총선에 전력투구함으로써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하지만 당이 전체정명의 위기를 맞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비례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당과 우리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될지 그 선택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 결정을 말씀드렸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친박 내에서는 박 비례위원장이 비례대표 23번 정도의 ‘말뼉’에 배치될 경우,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박 비례위원장은 간담회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목이 메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힌 모습이었다. 앞서 이종진 달성군 당협 수석부위원장 등 당협 관계자 6명은 국회에서 박 비례위원장을 방문 “달성군에도 지역 현안이 많기에 비례대표는 꼭 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비례대표 출마를 요청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새누리 상징색 ‘빨강+하양’

로고·심볼 확정

새누리당이 7일 당의 상징색으로 빨간색과 흰색을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비례위원장을 주제로 비례위 전체회의를 열어 당명 개정에 맞춰 새 상징색과 로고, 심볼을 확정했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징색은 기본적으로 태극기를 모티브로 했다. 흰색을 바탕으로 태극기의 문양 중 빨간색을 기본으로 했다”며 “흰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열정을 각각 상징한다”고 말했다.

새 세상에 대해선 “포인트는 열쇠로, 새 세상을 열겠다는 의미”라면서 “‘리’자에는 창 의 느낌이 들어가 있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Manbyung) by Kim Jung-d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in a suit pointing at a sign that says '결혼하면 1억' (1 billion won after marriage). Other elements include '무상급식' (free school meals), '교육' (education), '40만원' (400,000 won), and '사병' (soldiers). The text says '쫓쫓... 그것도 공약이라고...' (Choo choo... that's a promise, too...).

Large advertisement for Joy Travel (조이여행사)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It includes sections for '카멜리아로 떠나는 겨울온천 즐기기!!' (Enjoy winter hot springs with Camellia),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 (3-night 5-day Bangkok/Pattaya from Mu-an),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포르/바탐' (Singapore/Batam from Mu-an),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Hong Kong/Macau/Shenzhen from Mu-an), and '겨울에 떠나는 중국여행!!' (China travel in winter!!). It lists prices, departure dates, and includes a '3일 제주도 여행' (3-day Jeju Island travel) section with options for ferry or flight.